

1728년 무신란(戊申亂) 관련 문헌의 재검토

황재문*

- I. 머리말
- II. 국왕이 주도한 공식 기록의 편찬 과정
- III. 사찬(私撰) 문헌의 기록: 지역 또는 가문의 목소리
- IV. 허구화된 작품의 등장: 『사상당실록문집(四尙堂實錄文集)』
- V. 맺음말

<국문초록>

무신란(戊申亂)은 18세기 정치사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영조가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국왕의 정통성에 대한 의심이라는 요소를 내포한 위험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왕은 실제 사건의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신을 녹훈하였고, 공식적인 이해의 틀을 담은 『감란록』(1729)과 『천의소감』(1755)을 간행했다. 국왕이 제시한 사건 이해에 대해 여러 방향의 반론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이후 조선의 망국 이전까지는 『감란록』 등에 대한 전면적인 반론을 담은 문헌은 간행되지 않았다. 대신에 정치집단 혹은 가문이나 지역의 관점에서 나름의 의도를 갖고 『감란록』을 보완하는 문헌들이 나타났는데, 『남정일록』, 『무신창의록』, 『호남절의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문헌은 국가에서 주도한 공식적인 기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적으로 공인받지는 못했으며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공적을 강조 또는 과장한 흔적을 지니고 있다. 또 때로는 사실 여부가 의심스러운 진술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반론이라면 소극적인 반론인 셈이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왕조가 끝나고 봉당의 의미가 약화된 시점에 이르면, 무신란은 허구화의 대상이 된다. 힘센 장사이자 큰 전공을 세운 장수로 알려진 공신 이만유의 행적을 다룬 전기를 편찬한다고 내세운 『사상당실록문집』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문헌에서는 『남정일록』과 같은 기존의 기록에서 각종 전공의 주체를 ‘이만유’로 바꾸는 등의 전통적인 방식을 활용하면서도 때로는 야담이나 소설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만유는 어릴 때 천재성을 보이고 자라서는 이인(異人)을 만나 새로운 능력을 얻었으며 낮은 신분임에도 국왕의 예우를 받으며 출정하고 제갈량 같은 지략을 발휘하여 초인적인 공을 세우는 인물이 된다. 이 문헌이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남은 것은 이러한 허구화가 아직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용인되기 어려웠을 허구화의 면모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헌이 많이 산출되지는 못했는데, 이는 무신란이 국왕이 없어진 시대의 새로운 관심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단군이나 동명왕, 드라마적 요소가 강한 장희빈이나 사도세자 등이 자주 문학의 소재가 되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던 것이다.

핵심어: 무신란, 『감란록』, 『천의소감』, 『남정일록』, 이만유, 『사상당실록문집』

1. 머리말

‘무신란(戊申亂)’ 또는 ‘이인좌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영조 4년(1728)의 사건은 18세기 정치사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환국(換局)을 거치며 요동치던 봉당 간의 다툼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영조가 탕평책 및 균역법을 시행하고 각종 교화서 간행 및 사회 제도 정비에 나서는 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은 50여년을 왕위에 있었던 영조를 재위 기간 내내 괴롭히는 요인이 되기도 했으며, 따라서 조선에서는 자유롭게 시비를 거론할 수는 없을 만큼의 무게를 갖는 사건이기도 했다.¹⁾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고려시대의 ‘무신란(武臣亂)’으로 오해되기도 할 정도로 대중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준의 사건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그 규모가 큰 것도 아니어서, 전란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할 만한 유적이거나 이야기가 특별히 남아있지도 않다. 정공신 15명과 원종공신(原從功臣) 8700여명이 녹훈(錄勳)될 정도로 의미가 부여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신란의 시공간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여러 차례의 패서(掛書) 사건과 ‘역당’의 회합을 제외하면, 거병(擧兵)에서부터 진압까지 불과 17일 정도가 걸렸을 뿐이다. 최규서의 고변(告變)이 전해진 다음날인 3월 15일에 이인좌가 청주에서 군사를 일으켰으며, 4월 3일에는 함천 등 영남 지방의 난까지 진압되었던 것이다.²⁾ 서울을 비롯하여 영남, 호남, 호서, 관서 각지에서 거병(擧兵)을 모의하는 전국 규모의 계획을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호서 및 영남의 일부 지역에서만 거병하여 국지적 전투를 벌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란 자체는 많은 이야기거리를 산출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다양한 목적을 지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³⁾ 그 가운데 일부 가문 및 지역에게는 난의 평정 이후에도 사건의 영향이 지속되었다. 이 때문에 전란이 끝나고 상벌이 내려진 이후에도 적어도 관련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논란이 종식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에

1) 무신란의 원인 및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우성, 『지방토호 대 중앙 권력층의 투쟁』, 『경상남도지』, 1969에서 그 성격을 논의한 이래로 다수의 논지가 발표되었다. 사건의 전반적 성격과 연구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만하다. 이종범, 『1728년 ‘戊申亂’의 성격』, 이태진 편,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태학사, 2003(초판 1985); 고수연, 『英祖代 戊申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역사와담론』 제39집, 호서사학회, 2004; 고성훈, 『영조의 정통성을 묻다, 무신란과 모반 사건』,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장필기, 『영조 대의 무신란, 탕평의 길을 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Andrew David Jackson, *The 1728 Musin Rebellion*,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6.

2) 무신란의 경과에 대해서는 장필기, 앞의 책, 25~31면의 ‘연보’를 참고할 만하다. 이 연보에서는 영조의 즉위(1724)에서부터 『친의소감(閔義昭鑑)』 편찬 시작(1755)까지의 주요 사건을 일자별로 정리했다.

3) 무신란의 성격과 대해서는 ‘당쟁과 관련된 정변(政變)’으로 보는 견해와 ‘사회 변동과 관련된 변란(變亂)’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수연, 『英祖代 戊申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179~187면 참조. 한편 무신란의 성격에 대해 이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참여층이 복합적이었던 데 있다. 참여층의 구조에 대해서는 “조정 진신(朝廷縉紳)과 세가 명족(世家名族)의 후예”(제1주도층, “지방의 사족과 토호”(제2주도층), “향임 및 군관층”(제3참여층), “유민, 화전민, 소상인, 소작인”(제4참여층)으로 나누어 각각의 동기를 살핀 이종범의 견해(261~287면)를 참고할 만하다.

대해 직간접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을 법하다. 난을 진압한 세력의 입장에서는 역적을 토벌하는 공을 세웠으니 더 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난을 일으킨 세력의 입장에서는 불운하게도 ‘반정(反正)’이 실패한 것이기에 여전히 자신들은 ‘대의(大義)’를 지키려 한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란 이후의 처분 가운데 폐현(廢縣)이나 강등을 통해 지역의 이름이 바뀐 경우도 있으니, 자기 고을에 내려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일부 가문 혹은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⁴⁾

그렇지만 실제로 전승되는 이야기나 견해가 그리 다양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무신란을 ‘언급’한 설화는 5편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며,⁵⁾ 그나마 무신란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담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시대에 이미 적지 않은 문헌이 편찬되었지만,⁶⁾ 이들 문헌에 대한 연구에서 사건 참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나 상벌에 대한 불만 혹은 비판의 흔적을 찾아낸 일은 별로 없는 듯하다. 패자가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을 사정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승자 또한 활발히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던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무신란이 국왕의 교체를 꾀한 내란(內亂)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드문 사례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많은 공신 및 후손들이 자신 또는 선조의 공적을 그려낸 시문을 남기지 않은 것은 의외로 보이기도 한다.⁷⁾

4) 대표적인 사례를 1728년의 사건을 ‘무신봉기’로 규정하는 합천 지역의 조성좌(曹聖佐) 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찬용, 『1728년 무신봉기와 300년 차별』, 학고방, 2012.

5) 설화의 제목과 채록 지역은 다음과 같다. 『박문수가 장가 보내준 아이』, 『박문수와 여자 원혼』(이상 창수면), 『박문수를 도와준 복래』(횡성읍), 『원주 관설리 유래』(갑천면), 『어서 박문수』(거창읍). 다만 정희량이나 조성좌 등이 잠시 장악했던 서부 경남 지역의 조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1995년에 합천문화원에서 간행한 『합천군사(陜川郡史)』에는 ‘석가산의 쇄갓’이라는 설화가 실려 있는데, 이 설화에서는 무신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의병’으로 지칭하고 있다.

6) 고수연, 『英祖代 戊申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188~189면에는 관찬문헌 9종과 사찬문헌 13종을 제시하였는데, 사찬문헌의 경우에는 노론·완소의 입장(9종), 중립적 입장(3종), 준소의 입장(1종)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무란록(戊亂錄)』과 『당의통략(黨議通略)』을 ‘중립적 입장’으로 분류한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7) 후대의 인물들이 무신란의 과정에서 충절을 지키다가 죽은 인물 - 예컨대 청주성에서 반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봉상(李鳳祥)이나 경상감사로 있다가 갑자기 사망하여 적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황선(黃璿) - 을 기린 시문은 일부 전한다. 또한 무신란 관련 사적을 여행하며 읊은 시문도 찾아볼 수 있는데(최선희, 『단릉 이윤영의 시문에 나타난 영남의 인상: 1728년

상황이 이와 같다면, 실제로 무신란에 대해 특별한 이론(異論)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있었지만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던 것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헌 자체에 대해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신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주로 사건의 원인, 전개 과정, 영향 등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 소홀히 다루어졌던 문헌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문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편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감란록(勘亂錄)』 등 일부 문헌을 제외하면 편찬자나 편찬 목적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인데, 구체적인 편찬자나 편찬 시기 등을 확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편찬 과정에 대한 추론적 검토는 문헌에 서술된 내용의 의미를 보다 깊이 파악하기 위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728년 무신란을 다룬 문헌들을 점검하되, 편찬 목적이 분명하고 그 동안의 연구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되어온 문헌에서부터 검토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단편적으로만 활용되었거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문헌에 대해서도 접근해 보기로 한다.

II. 국왕이 주도한 공식 기록의 편찬 과정

무신란은 국왕의 ‘정통성’을 문제 삼은 사건이었다. 따라서 국왕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통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일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것 이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할 중대한 과제였다. 『감란록(勘亂錄)』(1729)과 『천의소감(闡義昭鑑)』(1755) 및 『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1755/1756)는 그러한 과제의 결과물인 셈인데,⁸⁾ 이들 문헌을 통해 국왕 영조는 ‘무신란’이라는

무신란의 흔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2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4), 이들 작품에서도 무신란 또는 이후의 처분에 대한 견해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8) 허태용, 「1728년 戊申亂의 진압과 『勘亂錄』의 편찬」, 『한국사연구』 제166집, 한국사연구회, 2014a; 허태용, 「英祖代 蕩平政局下 國家義理書 편찬과 戊申亂 해석: 『勘亂錄』, 『御製大訓』, 『闡義昭鑑』의 비교 검토」, 『사학연구』 제116집, 한국사학회, 2014b. 허태용은 무신란 진압에 참여한 소론 관료들을 ‘在朝 少論’으로 명명하여 무신란을 일으킨 소론과 구별하였다. 이하에서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제시해야 했을 것이다.

무신란 평정 이후 국문(鞫問)과 공신 녹훈 등 상벌을 마무리한 직후인 5월 5일에 영조는 신하들을 인견하여 관련 기록을 간행하는 데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국왕을 의심하고 무고한 역적들의 공초 내용을 나라 전체에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논의를 거쳐 조태억, 송인명 등이 중심이 되어 목관의 책자로 관련 기록을 간행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후 승문원에 찬집청(纂輯廳)을 설치하여 이를 국가적인 편찬 사업으로 공식화했다. 영조는 최규서의 고변(3월 14일)을 서두로 삼는 등의 의견을 내고 직접 초고를 검토하여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듬해 10월에 『감란록』을 완성하고, 11월에 그 간행과 반사(頒賜)까지 마무리하게 된다.⁹⁾

『감란록』은 최규서의 고변이 있었던 3월 14일부터 분무공신(奮武功臣)들이 전(箋)을 올린 7월 20일까지 88일간의 기록을 담았는데,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공식적인 문서들을 직접 수록하는 등의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건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국왕이 편찬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인된 사건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던 셈이었다. 물론 사건의 서술에 서술자의 특정한 목적이 담기게 된다는 점은 『감란록』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지만,¹⁰⁾ 사건의 기원 등에 대한 해석 문제를 제외하면 사건 서술의 사실성은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홍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와 같은 사건 자체의 기원, 그리고 참여자의 개인적 동기와 같은 부분에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준거를 제시한 셈이 되는 것이다.

『감란록』이 지닌 사실 관계의 준거로서의 지위는, 그 상당 부분이 실록의 서술에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실록의 서술과 비

서술하는 『감란록』과 『천의소감』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허태용의 논의를 주로 참고한다.

9) 허태용, 위의 논문, 2014a, 114~120면.

10) 위의 논문, 126~136면에서는 『감란록』에서 사건 해석을 세 가지 주장으로 정리했다. 첫째는 무신란은 김일경의 당여들이 주도하였고 재조 소론파는 무관하다는 주장, 둘째는 심유현의 홍언은 무함(誣陷)이며 무신란 진압은 하늘의 뜻이라는 주장, 셋째는 무신란의 근본은 김일경이지만 ‘최초 기원’은 봉당이라는 주장이다.

교해 보면 일부 내용이 누락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그 가운데 몇 가지 특징적인 사례이다.

(가) 바야흐로 적이 범할 때 밤이 되어 캄캄해지자 조현명이 읍촌에 불을 질러 환하게 하자고 했으나 오명항이 듣지 않았다. 이날 안성의 백성들이 아군에게 불태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도적들에 의해 불태워질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양쪽의 방화를 모두 면했으니, 한 고을의 큰 행운이었다.¹¹⁾

(나) 오명항은 열군에서의 첩보, 여러 장교들의 품재가 사면에서 답지하고 좌우로 수용하느라 먹고 잘 겨를이 없었지만 항상 경성의 숙위가 단약한 것을 걱정하고 주야로 방수의 계책을 생각했다. 혹 상신에게 사서(私書)를 보내기도 하고 혹 조정에 장계를 올리기도 했다. 오명항은 매번 공경스럽게 조명을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니, 온 군인들이 모두 감동했다.¹²⁾

(다) 오명항은 즐거움과 괴로움(甘苦)을 군졸과 함께 하고자 했다. 군졸이 먹은 후에 먹고 군졸이 잠든 이후에 취침하고, 군졸의 고난을 생각하여 방에서 자거나 비웃을 입지 않았다. 늘 위유할 때는 만면에 눈물을 흘려 사졸들이 감격하여 죽기를 각오하였다.¹³⁾

도순무사로 임명되어 무신란의 평정을 책임진 이는 오명항이었다. 따라서 오명항의 활동과 보고를 중심으로 사건의 경과를 진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위의 몇 가지 사례들은 오명항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음에도 실록의 서술에서는 제외되었다. 전후에 놓인 구체적인 사건 서술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감란록』의 편찬 과정에서 편찬 주체들의 견문(見聞)도 활용되었으니,¹⁴⁾ 실록에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일화들은 삭제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삭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실록 편찬자들의 사건 이해와 『감란록』 편찬자들의 사건 이해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1) 『감란록』 권1, 3월 23일조.

12) 『감란록』 권1, 3월 24일조.

13) 『감란록』 권3, 4월 19일조.

14) 허태용, 앞의 논문, 2014a, 124~125면.

『천의소감』은 1755년의 을해옥사(乙亥獄事)를 계기로 간행되었다. 나주에 유배된 ‘무신여당’ 윤지(尹志) 등에 의해 ‘나주과서사건’(1월)이 발생했고, 그 수습 과정에서 치러진 ‘토역과(討逆科)’에서 심정연의 ‘흉서’ 사건(5월)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무신란의 여당’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 특히 무신란의 진압에 참여한 완소(緩少)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물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 영조는 무신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새로운 문헌을 만들게 되니, 그것이 곧 『천의소감』이다. 다만 무신란(戊申亂)의 전개 및 수습 과정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쓰지 않고 “정벌하고 국문한 시말은 『감란록』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고 했는데,¹⁵⁾ 이를 통해 『감란록』은 여전히 ‘무신란 진압 및 국문(鞫問)의 공식적 기록’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천의소감』의 간행 또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업이었다. 찬수청(纂修廳)을 설치하고 김재로(金在魯) 등이 편찬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영조 자신이 서술 하나하나에 관여할 만큼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 결과로 국왕 영조가 직접 원고에 가필하거나 정리한 흔적이 주석의 형태로 다수 남게 되었다.¹⁶⁾ 『천의소감』의 첫머리에는 1721년의 일이 서술되는데, 이는 영조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무신란의 기원을 더 넓게 해석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해본을 함께 간행하고 전국에 반포하였는데,¹⁷⁾ 이는 당시 국왕의 정통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을 보다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천의소감』에서 새로 내놓은 견해 가운데 하나는 ‘흉인’의 핵심에 해당하는 왕세제[영조]가 국왕[경종]에게 계장과 생감을 올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15) 『천의소감』 권3, 『조선당쟁관계자료집』 9, 795면. “征討鞫治之始末, 詳載勦亂錄.” 이렇게 한 이유가 단순히 동일한 내용을 굳이 『천의소감』에도 수록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을해옥사를 거치면서 무신란의 공신 가운데 크고 작은 처벌을 받게 된 이들이 있었다는 점이 보다 현실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다.

16) 예를 들면 “이 단락은 어필로 재정했다(此段御筆裁定)”(권1)거나 “矣’자는 어필로 썼다(矣字御筆書下).”(권1)와 같은 주석이 보인다.

17) 원경하(元景夏), 신만(申晩)이 1775년 12월에 『천의소감』의 언해를 마쳤으며, 이듬해인 1756년 7월에 목판으로 간인하였다. 이후 지방으로 보내 번각하도록 했다고 한다. 1775년에 완성한 언해본은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언해본의 이본 및 언해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정승철, 『『關義昭鑑諺解』의 異本 比較』, 『규장각』 제13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0; 이지영, 『『關義昭鑑諺解』의 異本에 대한 고찰』, 『한국학』 제33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아아! 통탄스럽다! 이천해(李天海)의 흉언은 바로 금년 신치운(申致雲)의 흉언이다. 갑진년 8월 경묘(景廟)께서 병환이 다 낫지를 앓고, 수라(水刺)를 듣기 싫어하는 징후가 점차 더했기 때문에 궁중에서 근심한 나머지 20일에 어주(御廚)에서 수라에 계장을 올렸었다. 이는 가을철 신미(新味)여서, 경묘께서 이 계장으로 수라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궁중에서 모두 기뻐하였었다. 그 후에 지나치게 많이 들었다는 말이 밖으로 전해지자 이유익(李有翼)과 박필현(朴弼顯)의 무리가 이를 가탁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만들어 내고, 몰래 심유현(沈維賢)을 부추켜 전파시켰다. 그 요점은 역적 김일경의 흉언과 합치한다.¹⁸⁾

왕세제 즉 영조가 의가(醫家)에서 꺼리는 음식을 올려서 경종의 병세를 악화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흉언’은 지속적으로 영조를 괴롭혀왔는데, 영조는 이에 이르러 사실은 이 음식을 어주(御廚)에서 올린 것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이다. 실록에서는 영조가 이러한 사실을 신치운 처형 이후에 어머니[慈聖] 즉 인원왕후(仁元王后, 1687~1757)로부터 들었다고 했는데,¹⁹⁾ 이러한 해명이 이후 그대로 수용될 만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기도 하다. 이후에도 ‘신치운의 흉언’과 유사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데서 그러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8) 『친의소감』 권2, 『조선당쟁관계자료집』 9, 781면. “噫, 噫, 痛矣. 天海凶言, 卽今年致運之凶言也. 甲辰八月, 景廟違豫時, 水刺厭進之候漸加, 宮中憫迫, 二十日御廚於水刺, 供蟹醬. 卽秋節新味, 故景廟以此多進水刺, 伊時宮中皆歡喜. 其後過進之說, 流傳於外間, 有翼·弼顯輩, 假此而做出窺伺巨測之言, 陰嗾維賢而傳播之. 要以合於賊鏡之凶言.” 『친의소감언해』 권2. “희희 통의라. 던히 흉언은 곳 금년 티운의 흉언이라. 갑진 팔월 경피 위에호오실때에 수라 염진호오시미 점점 더호오시니 궁둥이 민박호여 호더니 이십일 어두로서 수라의 희장을 드리오니 곳 चु절 신미라. 경피 일로써 수라를 만히 나와 겨오시니, 그때 궁둥이 다 갖거호엿더니, 그 후에 과히 나오시단 말이 외간의 뉴던하니, 유익 필현비 이를 비러 궁흉과축훈 말을 지어내어 7마니 유현을 지주호야 던과호야 써 적경의 흉언의 합호게 호고.”

19) 『영조실록』, 1755년 10월 9일조.

III. 사찬(私撰) 문헌의 기록: 지역 또는 가문의 목소리

무신란의 전개 및 원인에 대한 국가 혹은 국왕의 공식적인 이해의 틀은 『감란록』에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신란이 국왕에 대한 모함 즉 ‘성무(聖誣)’를 근거로 삼아 거병한 사건이기 때문에, 영조 및 그 후손이 왕위에 있었던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제시한 이해의 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감란록』이나 『천의소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면 발언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듯한데, 그렇더라도 굳이 발언한다면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사찬(私撰)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문헌의 사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먼저 살펴볼 문헌은 『남정일록(南征日錄)』이다.²⁰⁾ 이 문헌은 4권의 목찰자본으로, 현재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으니 당시에는 상당히 널리 유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무신란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의 하나로 영인되기도 하였으며,²¹⁾ 실제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남정일록』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일부 목록집에서는 “영조 명편(命編)”으로 편자를 기록했고 영인본의 해제에서는 “관찬(官撰)”이라고 밝혀 두었는데, 이와 유사한 서술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언급은 편찬과 관련된 기록 또는 자료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닌 듯하며, 간행 과정이나 의도를 밝히는 서발(序跋)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²²⁾ 물론 『남정일록』이 도순무사 오명항이 이끈 관군의 활동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관련 문서를 수록

20) 표제에 따라 서명을 ‘남정록(南征錄)’으로 기록한 사례도 있지만, 권수제에 따라 ‘남정일록’으로 명명한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는 필사본을 포함하여 9종이 올라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1) 이이화 편, 『조선당쟁관계자료집』 9, 여강출판사, 1985.

22) 권두에 “어제어필(御製御筆)”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서문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왕 영조가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오명항에게 내린 유서(諭書)와 어필(御筆)이다. 『남정일록』에는 3월 28일의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록에서는 3월 26일에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3월 26일에 내린 두 차례의 유서(諭書)를 앞에 싣고[御製] ‘지확공고(志確功高)’라고 쓴 어필(御筆)을 뒤에 실은 것인데, 심상한 글들과 섞어놓을 수 없어서 앞에 실어 두었다고 했다.

해 놓은 문헌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편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국왕이 명하여 관에서 편찬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놓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부자연스럽다.

목록집 가운데 편자를 오명항의 적장자인 오언구(吳彦壽, 1718~?)로 파악한 사례도 보이는데,²³⁾ 이 견해는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편자 추정의 근거로 제시한 오명항의 이름을 피휘(避諱)한 흔적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4807) 등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데, 수록된 내용 가운데 오명항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으므로 편자가 오명항과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권두에 실린 「범례(凡例)」에서는 『승정원 일기』, 『감란록』, 등록류와 함께 조풍원(趙豊原, 조현명)의 일록(日錄) 및 군관인 신진숙(申震燾)과 권희학(權喜學)의 기록을 참고하였다고 밝혔는데, “기록(所記)”을 남긴 개인으로 거론된 인물들은 모두 오명항과 함께 군관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한편 『남정일록』의 간행과 관련하여 문헌 내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박찬신의 이름 아래에 “을해년에 처형되어 삭훈되었다.(乙亥伏誅削勳)”는 주석이 붙어 있다는 점이다. 박찬신은 무신란 진압 이후에 이등공신에 올라 함녕군(咸寧君)으로 봉해졌지만 을해옥사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는데, 이 때문에 현전하는 자료에서는 그 이름이 지워진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즉 『남정일록』이 을해옥사 이후에 편찬 혹은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간행의 동기가 을해옥사 이후의 정국과 관련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이미 공식 기록인 『감란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소(緩少)의 공적을 더 자세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밝힌 문헌이 필요했던 상황이 되었다는 추론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정일록』의 서술을 살펴보면, 도순무사 오명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점은 유의할 만한 대목으로 보인다. 특히 무신란 이후의 민심 수습 과정에서는 오명항은 항상 백성들이 농시(農時)를 잃게 될까 근심하는 관리로 그려지고 있으며, 큰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변란의 상황에 적절하게

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jsg.aks.ac.kr/data/dir/bookView.do?callNum=K2-184>).

대응하지 못하는 경상감사와 병사(兵使), 그리고 일부 고을의 수령들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과 대비된다. 오명항의 관군이 이르기 전에 영남 반군이 제압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서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남정일록』과 함께 살펴볼 만한 문헌으로는 국문 필사본인 『평남록(平南錄)』이 있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²⁴⁾ 내지에 “영종조 무신 남란사실(英宗朝戊申南亂事實)”이라는 말이 필사되어 있지만 그것이 성책(成冊) 당시의 기록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편자와 편년 모두 분명하지 않은 문헌인 셈이며, 필체로 보면 후사본일 가능성도 있다.

『평남록』은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지만, 문헌 해제에서는 관군 내부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남정일록』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지닌 문헌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물론 이 문헌이 오명항이 이끈 관군의 문서를 다수 수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사건 서술도 있고 특히 『남정일록』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 가운데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종사관 박문수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두 부분은 『남정일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가) 김산 빅성이 좌우의 족집혀야 손을 드러 하례하고, 박종스 전님 군복 님으를 보고, 늘근 한미 곱오디, 우리 어식 엇디 전님 군복을 흐엿는고 흐며 즐겨 맛는 빗치 이시니, 대개 종시 전의 어스로 왕니혀야 민심을 어든 연괴러라.²⁵⁾

(나) 평명의 니발혀야 거창 읍니 등화하고, 안읍[읍]의 니르니 ㄹ 변난을 지나 촌낙이 공허흔지라. 순뫼 비록 효유혀야 안집고져 하니, 다 의구혀를 품으니, 대개 희망이 명현예후로 집이 또 부후혀야 향니의 교형하니 상하 인민이 망풍추부혀야 감히 어그릇지 못하다가, 그 버히물 님으므로 일읍 인민이 비록 친척 족당이 아니오 또 그 흥모의 간예흔 일이 엽서도 또흔 다 위구혀야 산곡의 도찬(逃竄)하니, 실노 안둔키 어렵은디라. 순뫼 현아의 드러가 관속을 불너 모호고, 협종을 다스리디 아닛는 뜻을 여러 가지로 기유혀여 니르니, 관속 촌민이 비로소 약간 와 뵈는 재 잇거늘, 순뫼 박종스로 흐여곰 수일 뉴혀야 효유 안집게 한다.

순뫼 적도 취도와 세민 등을 배히고져 하니, 박종시 곱오디, 쇼인 이피 어식

24) 도서번호는 ‘가람 古 951.053-J466’이다. 현재 하책만 전하며, 상책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25) 『평남록』, 14b. 4월 4일.

되였시니 여귀 머무러 여얼을 소제히미 쇼인의 직칙이라. 만일 취도의 배히물 느추와 쇼인을 맞지시면 즈세히 그 여당을 무러 수로히미 맞당히여이다. 순피 허락히니, 박종시 직사 섬 아리 나안자 취도드려 무러 곶오디, 네 이제 의역을 범히여 맞당히 배힐디라. 엇디 반드시 네 동당을 은휘히리오. 취되 곶오디, 덩·니 냥적이 날을 달니야 여귀 니르러시니 동모 제인을 엇지 반드시 은휘히리오. 다만 정신이 미란히야 능히 괴롭디 못히니, 만일 민 거술 잠간 늦추면 맞당히 일일 지고히야 은휘히미 업스리이다. 박종시 명히야 그 민 거술 느추고 서리 황탁됨으로 히야금 그 고희는 바 사람의 성명을 괴롭히야, 과연 다 잡으니라.²⁶⁾

(가)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한 할미가 무장의 복색을 한 박문수를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박문수가 이미 어사로 활동하면서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처럼 환영받았다고 했다. (나)에서는 오명항이 군사들을 이끌고 안음에 들어왔을 때의 풍경을 다루었다. 안음은 정희량의 본거지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그곳 백성들이 관군을 맞이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도순무사 오명항이 별다른 잘못이 없는 백성들에게 함부로 죄를 묻지 않겠다고 공언하여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때 자원하여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 바로 박문수로 제시된다. 박문수가 설득하자 백성은 이응보와 정희량의 꾀에 빠진 것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무리[同黨]를 아뢰었다고 했는데, 이런 서술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남정일록』과 『평남록』이 관군으로 종군했던 완소(緩少)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헌을 편찬한 이유도 짐작해볼 수 있다. 간행 또는 편찬과 관련된 사실이 더 확인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식 기록인 『감란록』에서 불충분하게 다루어진 자신들의 공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무신란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한 차례 이루어진다. 1788년(정조 12) 무신년, 즉 무신란 이후 60년 만에, 국왕 정조는 무신년의 충신과 공신,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조치를 명한다. 3월에 충신과 공신에 대해 거론했는데,²⁷⁾ 4월에 곧바로 안동의 의병장에

26) 『평남록』, 24b~25b. 4월 7일.

27) 『정조실록』, 1788년 3월 1일조.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 체제공의 요청에 따라 안동 의병장 유승현, 권만, 우하형에 대한 포상이 시행된 것이다. 사실 무신란의 수습 과정에서 안동 지역의 남인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정희량과 이웅좌가 안동 지역 남인들과 공모 하였으나 결국 실제 거병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이 공초에서 나왔지만, 영조는 반대를 무릅쓰고 안동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²⁸⁾ 실제로 거병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의병을 모아 기의하기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니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동의 유립들은 일부 인사에 대한 포상에서 더 나아가 안동의 창의 사실을 밝힌 문헌을 편찬하고 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진동이 중심이 되어 5월부터 의병 활동의 문적(文蹟)을 모아 자료를 준비하고²⁹⁾ 8월부터는 대궐 문에 엮으려 상소를 올리고자 했다.³⁰⁾ 국왕 정조는 그 보고를 듣고 영남을 칭송하며 은전을 내릴 것을 명하였으며,³¹⁾ 11월에는 “60주년을 맞이하여 옛 공적을 모두 기록하는(舊甲重回, 舊功咸錄)” 시점에 ‘창의록(倡義錄)’을 반포할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제 간행이 이뤄진 것은 1874년(고종 11)의 일이며, 그나마 국가에서 간행한 것도 아니었다.

간행 논의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인좌, 정희량과 모의했다는 소문이 있었던 권구(權渠)의 행적이 『무신창의록』의 ‘별록’에 포함된 데서 단서를 찾아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별록’에 포함된 권구의 창의 행적이다.

사인(士人) 권구(權渠)

안동 사람이다. 갑자년의 명신인 참찬으로 추증된 권주의 7세손이며, 군수 권박의 손자이다.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까웠고 경학과 문장으로 사람으로부터 존경받

28) 안동 지역 사족이 무신란의 주도세력과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여러 견해가 함께 존재한다. 공초의 내용이 엇갈리고 안무사 박사수의 판단이 변모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이육,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제42집, 고려사학회, 2011, 141~148면 참조.

29) 『일성록』 1788년(정조 12) 11월 6일조.

30) 고수연, 『『무신창의록』을 통해 본 18, 19세기 영남 남인의 정치 동향』, 『역사와 담론』 제65집, 호서사학회, 2013, 315면.

31) 『승정원일기』 1788년(정조 12) 11월 7일조.

았다. 변란이 일어난 초기에 뜻을 같이하는 사우들과 함께 병산서원에 들어갔는데, 먼저 창의 의론을 펴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추대하여 따랐다. 안무사와 호소사의 글로 인하여 본부(本府)로 달려갔으며, 의병부대를 일으켰다. 문집이 있다.³²⁾

권구의 이름은 이인좌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공초에 등장한다. 이에 의하면 이인좌의 동생인 이용좌가 포섭하려 했던 주요 인물임은 분명한데, 그가 이인좌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의심을 완전히 벗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나 변명은 하지 않은 채로 병산서원에서 창의를 주장하고 안동으로 돌아와 의병을 일으켰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무신창의록(戊申倡義錄)』에는 영남 지역 13개 군현의 의병 1014명의 명단과 함께 절목(節目)과 일기, 통문 및 격문이 수록되어 있다.³³⁾ 이들 가운데에는 권구처럼 논란이 되었던 인물들을 포함하여 『감란록』이나 공신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간행을 추진한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신창의록』은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을 보완하면서 영남의 인사들은 무신란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활동했다는 담론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의도의 측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을 들 수 있다. 이 문헌은 1799년(정조 23)에 간행되었으며, 권두에 홍양호(洪良浩)와 고정현(高廷憲) 등의 서문을 실었다.³⁴⁾ 『호남절의록』은 무신란을 포함

32) 『무신창의록』 권4. “士人 權渠 安東人 甲子名臣 贈參贊柱七世孫 郡守搏遜 天資近道 經學文章 爲士林宗仰 變初 與同志士友 入屏山書院 首發倡義之論 衆皆推服 繼因安撫號召兩使書 馳赴本府 倡起義旅 有文集”

33) 고수연, 『『무신창의록』을 통해 본 18, 19세기 영남 남인의 정치 동향』, 312~313면 및 325면. 1014명과는 별도로 별록에 31명, 속별록에 168명의 인물이 더 기록되어 있다. “13개 고을”은 안동, 상주, 예천, 순흥, 영천(永川), 의성, 예안, 풍기, 영천(榮川), 진보, 영양, 봉화, 용궁이다.

34) 『호남절의록』은 1799년 여름에 순천 송광사(松廣寺)에서 처음 간행되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또 현전하는 이본들 가운데 장서각 소장본은 교정 및 보각을 거친 후쇄본이라고 알려져 있다(노기춘, 『호남절의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4집, 한국서지학회, 2009.). 한편 이본에 따라 서문에는 차이가 있다. 홍양호와 고정현 외에도 이병모, 유광천, 양주익의 서문이 붙은 판본이 현전하는데, 고정현의 서문은 누락된 곳이 없다. 때문에 고정현이 편찬을 담당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본 상황과 편자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수, 『호남절의록의 사료적 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제44집, 호남사학회, 2011, 34~41면 참조.

하여 임진란,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다섯 전란에서 절의를 지킨 호남의 인사들을 다룬 문헌인데, 이 가운데 무신란은 순절(殉節)한 사람이 없어서 이질적으로 보이기도 한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란의 사적을 포함시킨 이유는 호남 지역에서 박필현을 중심으로 한 모의가 이뤄졌던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호남절의록』의 『무신의적(戊申義蹟)』에는 모두 99명의 인물을 수록하였는데, ‘창의(倡義)’에 48명을 수록하고 ‘수훈(樹勳)’에 51명을 수록하였다. 그 서두에는 무신란의 개요를 정리한 ‘무신기사(戊申記事)’를 실었는데, 여기서 무신란을 바라보는 편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영조 4년 무신년 3월 14일에 봉조하 최규서(崔奎瑞)가 청대하고 정관빈(鄭觀賓)이 고변하였다. 상계서는 제도에 엄히 방비할 것을 명하시고, 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을 사로 도순무사로 삼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역적을 토벌하게 하셨다. 15일에 역적 이인좌와 이웅보(李熊輔) 등이 밤에 청주를 함락시키고 병사 이봉상(李鳳祥)과 영장 남연년(南延年) 등을 살해하였다. 역적 정희량 등은 거창·안의·함양 등의 고을을 함락시켰다. 오명항은 소사에 군사를 진군시키고서 역적의 형세를 정탐하였으며, 군사를 나누어 안성과 죽산을 향하였다. 안성군수 민제장(閔濟章)을 보내서 역적을 습격하여 크게 물리치고 역적의 괴수 아홉의 목을 베었다. 역적의 무리가 차례로 체포되었다. 상계서는 헌책례를 받으시고, 양무(揚武) 공신의 녹권을 반사하셨다.³⁶⁾

최규서와 정관빈의 고변으로부터 무신란에 대한 서술을 시작한 것은 『감란록』과 일치하며, 전개 과정의 개요 또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 기록에는 어색한 부분이 두 가지 존재한다. 첫째는 호남의 상황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 호남에서는 심유현, 박필현, 박필몽과 같은 주요 인물들이 활동했으며 전라감사 정사효(鄭思孝)가 연루되

35) 『호남절의록』의 『凡例』에서는 “무신년의 사적에는 순절이 없다. 그러므로 창의록을 앞에 두고 수훈록을 그 뒤에 둔다.(戊申無殉節. 故先倡義, 後樹勳.)”고 밝힌 바 있다. 전체 체제를 바꿀 정도로 이질적인 성격이 있었던 셈이다.

36) 『호남절의록』 권1, 『戊申記事』. “英廟四年戊申三月十四日, 奉朝賀臣崔奎瑞請對, 鄭觀賓告變. 下諭諸道嚴防備, 命兵判吳命恒, 差四路都巡撫使, 領兵討賊. 十五日, 賊麟佐熊輔等, 夜陷淸州, 殺兵使李鳳祥·營將南延年等. 賊希亮等, 陷居昌·安義·咸陽等邑. 命恒進兵素沙, 偵探賊情, 分兵向安竹, 遣安城郡守閔濟章, 襲擊大破之, 斬賊魁九人, 賊徒次第就捕. 上受讖, 頒赦錄揚武勳.”

어 처형되었으니, 비록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남은 분명히 전란의 주요 현장이다. 반란군에 맞선 활동을 제시하는 창의록의 속성상 이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의도적으로 호남의 반란 상황을 제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제장(閔濟章)에 대한 서술이다. 민제장이 용맹한 무관으로 신임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늙고 건병(蹇病)마저 있어서 출전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 때문에 오명항 부대의 뒤를 방비하는 계원장(繼援將)이 되어야 했다.³⁷⁾ 그런데 역적의 괴수(賊魁) 9명의 목을 베는 등의 공로를 세웠다고 했다. 민제장은 ‘수훈(樹勳)’의 첫 번째 인물로도 수록되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공로가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감란록』의 서술과는 어긋난다. 박종원과 설동린을 베었다고 했지만, 『감란록』에서는 각각 이만빈(이만유), 민제만이 이들을 베었다고 기록했다. 당시 전투의 지휘자 또한 권희학(權喜學)이었다. 또한 이인좌와 정세운을 생포한 공을 세웠다고도 했는데, 그 공은 각기 시골 백성 신길만(申吉萬)과 장수 이만빈(이만유)의 것으로 『감란록』에는 기록되어 있다.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과는 어긋나는 ‘왜곡’인 셈이다. 사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전공(戰功)을 조상 또는 인연이 있는 인물에게 돌려놓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닌데, 이미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공신을 찾는 분위기가 조성된 결과로 이러한 현상도 나타났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을 단위의 기록이 정치적 의도와 연관되어 있다면, 개인적인 기록에서는 그러한 면은 다소 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무신란의 경우에는 발언하거나 기록하기를 꺼릴 만한 요소가 내재해 있기 때문인지 그러한 사례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 듯하다. 그렇지만 한글 기록인 「난리가」의 경우는 특별히 주목할 만하며,³⁸⁾ 이밖에 한문 기록인 「무신난리(戊申亂離)」와 「무란록(戊

37) 『승정원일기』 1728년(영조 4) 3월 20일조. “上曰, 閔濟章卽今有蹇病云, 若有難進之慮, 則何以爲之. 馨遠曰, 濟章雖有病, 何有難進之慮乎. 上曰, 張泰紹禁軍將留置, 閔濟章繼援將差下, 可也.”

38) 유탁일, 「미발표작품 난리가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61집, 국어국문학회, 1973; 유탁일, 「아원즉 장수잡는 일이기예」, 『오늘의 문학』 장간호, 오늘 문학사, 1977; 정우봉, 「18세기 마병(馬兵)의 한글일기 ‘난리가’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43집, 고전문학회, 2013. 정우봉은 「난리가」를 가사가 아닌 한글일기로 규정하였으며, 훈련도감 소속의 마병(馬兵)이 1728년 12월 무렵에 쓴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 작품은 역사학계에서는 책의 제목인 「무신록(戊申錄)」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원근,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 『釜大史學』 제2집, 효원사학회, 1971에서

亂錄)처럼 개인적인 체험을 기록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³⁹⁾ 「난리가」의 갈래가 가사인지 일기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병사의 눈으로 지휘관을 풍자하고 고단한 생활을 묘사한 점은 분명히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다.⁴⁰⁾

한편 「난리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박찬신(朴贊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박문수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보인다는 점이다. 박문수는 설화는 물론이며 앞서 거론한 한글본 『평남록』에도 긍정적인 면이 부각된 인물이다. 이에 반해 박찬신은 처음부터 김일경의 무리로 의심받기도 했고 결국은 나주괘서사건(1755)에 연루되어 처형당하고 삭훈(削勳)된 인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난리가」가 두 사람의 형상을 그렸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두 사람의 실제 행동인지는 다른 자료 및 이본을 통해 더 살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문헌들은 분명히 『감란록』이나 『천의소감』과는 다른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때로는 ‘관찬(官撰)’으로 오해될 정도로 공식적인 기록처럼 보이기도 했으며, 적어도 『감란록』이나 『천의소감』의 관점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면모를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식적인 기록 및 담론을 보완하는 차원의 소극적인 목소리를 낼 뿐이었을 따름이니, 『감란록』 등과의 차이가 주목되지 않았던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무신란’에 대해 발언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소극적인 목소리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는 이를 활용하여 관군의 상황을 검토한 바 있는데, 활용한 문헌은 유탁일 소장본이라고 했다.

39) 박상석, 「전란에 뒤흔들린 민간인의 일상: 민간인의 무신란 체험 실기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김정천(金敬天, 1675~1765)은 무신란으로 인해 과거를 보지 못하고 되돌아와 의병이 되어야 했던 일을 기록했고, 이이명의 사위이기도 한 김원조(金遠祚, 1665~1755)는 피란을 떠나면서 신주의 매안(埋安) 문제를 고민했다고 한다.

40) 정우봉, 「18세기 마병(馬兵)의 한글일기 ‘난리가’ 연구」, 303~319면에서 이 두 가지 “주제 의식”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정우봉은 작품의 완성 시기를 1728년 12월 무렵으로 추정하였다. 한 가지 사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나라히 문누(門樓)의 던자(殿座)하시고 군줄을 위로흐시며 대공(大功)을 기리시며 무슴 소회(所懷) 잇거든 알외라 하시니 엇디 소회 업스리오마는, 알원 즉 창슈 잡는 일이 되매 비록 거져 도라오나 전쥬셔 굴픈 일이야 여너 군시 니즈리오.”

IV. 허구화된 작품의 등장: 『사상당실록문집(四尙堂實錄文集)』

『사상당실록문집(四尙堂實錄文集)』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2권 1책의 필사본이다. 이 책은 무신란의 공신 15인 가운데 한 사람인 이만유(李萬冏, 1684~1750, 초명은 만빈)의 실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만유는 상당산성에서 항복하여 이인좌의 진에 가담한 박종원을 베는 등의 공적을 세웠으며, 영조로부터 장사로 인정받기도 했다.⁴¹⁾ 전공을 세운 공신의 기록인 썸이니 승자의 인식 또는 이해를 담은 사례로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감란록』의 공식적인 서술과 어긋나는 점이 적지 않아서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된다. 편찬 및 유입의 시점도 이러한 의심을 깊게 한다. 정확한 편년은 확인되지 않지만, 박사형(朴師亨)의 서문(1767)과 기우만(奇宇萬)의 『한원군영당중건기(韓原君影堂重建記)』(1910.3.)가 함께 수록되어 있으니, 무신란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 편찬 또는 증보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원래 규장각 장서에 포함되어있던 문헌은 아니었으며, 1942년 10월 3일에 경성제국대학에서 이종대로부터 7원에 구입하여 장서로 편입시킨 것이다.⁴²⁾

『범례』에서는 실록(實錄)과 문집(文集, 2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실록’ 가운데 앞부분만 남아 있다. 『범례』에는 편찬을 위해 참고한 문헌의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이 목록은 『남정일록』과 지나치게 비슷하며 다소 부자연스럽다. 『승정원일기』, 『감란록』과 함께 거론된 ‘南征錄’은 『남정일록』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박문수의 『남유집설』과 『남정일록』만을 참고해서 편찬했다는 말이 된다.⁴³⁾ 편자가 조현명, 신진소, 권희학의 기

41) 영조가 공신들을 인견한 일화에서 이만유의 힘을 엿볼 수 있다. 『감란록』 권5, “상이 만빈에게 이르기를, ‘한원군은 殿庭으로 내려가서 철추를 들어보라.’ 하니, 만빈이 곧바로 가서 철추를 들어 한 차례 돌린 뒤에 있던 곳에 도로 놓았다. 상이 이르기를, ‘이 철추는 보통 사람 여럿이 힘을 합쳐도 세워놓을 수 없는 것인데, 만빈은 혼자서도 높이 드는구나. 과연 역사로다.’ 하였다. (上謂萬彬曰, ‘韓原君, 下往殿庭, 學鐵椎, 可也.’ 萬彬卽趨往學鐵椎, 一次運旋後, 還置舊處. 上曰, ‘此鐵椎, 平人則雖數人, 不能豎立. 而萬彬獨自高舉, 果是力士矣.’) ” 『영조실록』 1728년 5월 1일조에 이 일화가 요약된 형태로 실려 있다.

42) 도서번호는 ‘古 4655-92’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한국학장기기초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조선본 수서목록 정리 사업(연구책임자: 정병설)에서 구축한 DB에서 유입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업 및 DB의 개요는 정병설, 『도서관부』를 통해 본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한국고서 수집, 『문헌과해석』 제63집, 태학사, 2013 참조.

록을 직접 구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만유의 활동이 그리 자세히 그려지지 않은 『남정일록』을 참고하면서 이만유의 생애를 그려냈다고 고백하는 셈이 된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더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책의 제목에 “실록(實錄)”이라는 말을 사용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고, 무신란 이후의 기록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장수의 호로 “사상당(四尙堂)”이 어울리는지도 다소 의문스럽다. 충효문무(忠孝文武)의 넷을 모두 숭상한다는 뜻을 지닌 ‘사상당’은 영조의 어필(御筆)에서 따온 것이라 했는데,⁴⁴⁾ 이 정도로 높이 평가되는 인물이 특별한 행적을 관찬 기록에 남기지 못했다는 점도 부자연스럽다.⁴⁵⁾

‘실록’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심은 더욱 깊어진다. 무신란 이전의 생애는 한 해를 단위로 기록하고 무신란 때의 일은 하루를 단위로 기록하였는데, 우선 무신란 이전의 생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3) 『사상당실록문집』 권1, 5a. “實錄多而南征事, 而不無煩攘隔閼之病. 故較而政院日記, 南征錄, 勘亂錄, 趙豐原日記, 朴靈城南遊集說, 軍官申震燾·權喜學等所記, 及諸曹謄錄諸書, 採摭而折衷之, 又參以公私見聞, 成是書.”

44) 이경재, 『비문(碑文)』, 『사상당실록문집』 권2, 43a. “四尙堂, 卽英宗御筆也. 曰, 大舜曾子之孝, 皋陶·稷·契之忠, 司馬·昌黎之文, 諸葛·樂毅之武, 皆可尙矣. 故顯此以旌.”

45) 이만유에 대해 칭송한 기록은 찾기 어려운 반면에, 오히려 그의 공적을 의심한 사례도 보인다. 『야승(野乘)』 권20, “이만유는 초명이 만빈으로, 무과에 급제하여禁營에 소속되었다. 무신란에 도순무사 오명항이 출진할 때 따라갔는데, 죽산에 이르러서 적장 朴宗完[朴宗元]이 말을 달려 달아날 때에 군사 조대선이 총을 쏘아 종원의 다리를 명중시키니 쓰러져서 통곡하였다. 만유가 급히 그 머리를 베고서 말을 달려 적에게로 나아가니 적들이 보고서 무너져 흩어졌다. 공훈을 정할 때에 태선은 상을 받지 못하고 만유는 공적을 헤아려 한원군에 봉해졌다. … 태선이 총탄으로 적의 기운을 빼앗은 것은 가히 선봉을 꺾은 공이라 할 수 있는데 훈원에는 누락되었다. 아깝도다. 만유의 종적이 비천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발탁되어 여러 차례 큰 공을의 수령을 거쳤고, 경상수사에까지 이르렀으며 재임 중에 죽었다.(李萬圃, 初名萬彬. 登武科, 隸於禁營. 戊申都巡撫使吳命恒出戰時, 萬圃隨行, 至於竹山, 賊將朴宗完韜馬高逃之際, 軍士趙太先放丸, 中宗完脚, 僵仆痛哭. 萬圃急斬其首, 馳馬赴賊, 賊望風奔潰. 及其絞動之際, 太先無賞, 萬圃勘功, 封爲韓原君. … 以太先之一丸摧奪賊氣, 可謂摧鋒之功, 而漏於勳券. 惜哉. 萬圃蹤跡卑踐, 而因此拔擢累經雄牧, 終至慶尙水使在任而終.)”

연령	주요 내용
1세	출생(태어날 때 큰비가 오고 번개가 쳐서 어머니가 혼절했다가 출산)
2세	걸음
3세	六甲·九九·方向·干支를 알고, 말을 타고 성내를 왕래함
4세	조부상(아버지를 모시고 여묘살이). 글씨를 쓰고, 사략 초권 등을誦함.
5세	通鑑 9권과 이백의 시를 읽.("神人降生"이라는 칭송)
6세	부친과 시를 응대함. 삼략 1권, 소학 1절을 배김
7세	禁軍인 부친의 兵書에 대해 논하니, 소학을 읽도록 명함.
8세	소학, 통사, 격몽요결 학습
9세	四書를 읽고 두루 통함.
10세	초사 읽고 시를 지음. 왕희지의 『草訣百韻歌』를 따라 씀.
11세	삼경을 읽음. 부친이 武科에서 재갈을 물지 않는 말로 고생하자 이를 해결함.
12세	판대가문, 장자 등을 읽음. 전서를 씀.
13세	경전·제자백가서·醫書·점복서에 통달. 밤에는 말달리고 낮에는 奇門, 劍譜 학습. 부친상.
14세	상을 치름("老成人"과 같음)
15세	상을 치름
16세	혼인(안동 김씨)
17세	養親을 위해 금강산에서 벌목을 함. 과거를 권하는 주변의 말을 물리침(부친이 급제하고서 객사하였으니, 과거는 집안의 禍網이라는 이유)
18세	벌목하면서 책을 읽음(日誦一經)
19세	벌목하는 동료 가운데 이익을 독점하려는 이와 다툼이 있었으나, 죽이지는 않고 귀가 벗인 온성 수령을 만나기 위해 잠시 집을 떠남(이미 죽어서 만나지는 못함) 어선을 탔다가 중국인 陸弼을 만나니 재목임을 알아보고, 짐을 보는 중국인 徐光은 자신의 딸과 혼인하기를 권하다가 점괘를 줌. 육필과 노닐다가 작별하였는데 모일 모처에서 "石道士"를 만나 건네주려는 봉서 발견. 노모를 위해 생선을 파는 아이를 도와줌(아이는 곧 趙泰先이었음)
20세	동생 萬春이 16세로 승보시에 급제하니, 선조들의 일을 들어 근심하고 모친에게 請罪함. 독서.
21세	꿈에 陸弼을 보고서, 약속된 날에 금강산에서 석도사를 만나 "三才經"을 받음.
22세	아들을 낳음.
23세	모친의 말에 호랑이를 부리는 재주를 보여주었으나, 이로 인해 질책 당함. 모친의 뜻에 따라 "外書"를 불태우고 소학, 주례 등만을 읽게 됨.
24세	모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인 茯神을 구할 수 없었는데, 잠결에 들린 소리에 따라 "금천 박검서 집"에서 이를 구함(뒤틀날 약을 준 이를 찾을 수 없었으니, 誠孝에 하늘이 감동한 것)
25세	孝梯茂行之士로 천거됨

26세	딸을 낳음. 주역을 연구함.
27세	돌립병으로 모친을 모시고 집을 떠났으며, 결국 병을 면함. 효성으로 추천됨.
28세	崔奎瑞의 추천을 받았으며, 왕이 등용하도록 함. ⁴⁶⁾
29세	장릉참봉
30세	尹淳이 천거하여 금부도사로 제수되나 모친의 병으로 사직.
31세	동생 萬春이 사마시 급제하니, 홀로 기뻐하지 않음.
32세	아들을 낳음
33세	李廷濟의 추천으로 直長이 됨.(국왕이引見)
34세	모친의 병으로 사직.
35세	동생 萬春의 요절. 직장에 제수되지만 출사하지 않음.
36세	춘당대의 무과에서 장원하고 사복주부가 됨.
37세	딸을 낳음
38세	近侍武臣인 別軍職으로 선발됨.
39세	숙직. 부모구혼은 積善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
40세	모친의 질책으로 사친의 정 때문에 고심하지 않게 됨.
41세	趙泰億의 장계에 따라 양성현감이 됨. ⁴⁷⁾
42세	양성현감으로서 선정을 펴
43세	모친이 《女則》 5篇을 씀. 都監把摠이 됨.
44세	변란의 조짐이 보임. 建白.

실기류 문헌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여기서 제시한 생애는 통상적인 과장의 수준을 벗어난다. 실제로 그러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현실에서 나타날 수 없거나 다른 기록과 어긋나는 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태어날 때 큰비가 오고 번개가 쳐서 어머니가 혼절했다는 일화, 그리고 3세 때 이미 육갑(六甲)을 알았고 5세 때에는 뛰어난 시재(詩才)를 발휘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일화 등은 뛰어난 인물을 표현하는 수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법하다. 그렇지만 18세 때에 작판(作板)을 하러 가서 황포를 부리는 인물을 만나고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육필(陸弼)이나 서광(徐光)과 같은 이인(異人)을 만났다는 일화는 비현실적이며, 이 대목의 문체도 야담이나 소설에 가깝다.

46) 최규서는 무신란의 첫 고변자였지만, 이 이외에 이만유와의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47) 趙泰億은 당시 호조판서였으니, 이 내용은 사실과 어긋난다. 또한 여기에 언급된 계문은 찾지 못하였다.

기록과 대비해볼 수 있는 것은 무신란 당시의 행적인데, 그 서술은 『남정일록』에 바탕을 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법례』에서 『남정일록』을 참고했다고 이미 밝히고 있지만, 실제 서술에서는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사상당실록문집』에는 1728년 3월 15일에서 28일까지의 14일 동안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⁴⁸⁾ 아래의 표에서는 그 일자별 내용을 요약하되, 『남정일록』과의 차이를 함께 제시한다.

일자	주요 내용	『남정일록』과의 차이
12 ~15일	최규서의 告變과 조정의 회의.	
16일	김중기(순토사), 박찬신(중군)을 임명하여 출전. 김중만의 告變으로 상황이 분명해짐.	
17일	병조판서 오명항이 도순무사로 자원 출장함. 박찬신(중군), 박문수·조현명(종사관), 이삼(선봉장)	
18일	① 中營將 재목이 없어 고민하던 중에, 윤순이 이만유를 천거하여 오명항이 이를 따르다. ② 이만유를 두고 오명항과 이삼이 갈등하다. ③ 소식을 들은 왕이 이만유를 불러들여 문답하고, 중영장으로 가게 하다(따로 상방검을 내림). ④ 임금이 추곡의 예[推轂禮]를 행함. ⑤ 박문수의 건의에 따라 과천에서 하루를 보내다.	①~④는 없음(평화로운 출전). ⑤는 이만유의 중재가 없음.
19일 ⁴⁹⁾	① 수원까지 행군. 청주성의 소식을 들음. ② 적 군세 낮춰 말해 군졸 사기 높임(이만유 건의) ③ 남태징, 이사성의 제압을 건의함 ④ 남태징 등의 제압 방법 직접 건의하기를 청함. ⑤ 국왕 요청으로 독대하여 이만유가 계획 올림. ⑥ 이만유의 계획에 따라 남태징, 이사성 제거.	②는 오명항의 독자적인 판단 ③은 없음. (공초에 따라 남태징/이사성의 처벌 준비 중) ④는 없음. 20일의 장계 활용. ⑤, ⑥은 없음.
20일	① 진의 위치를 옮길 것을 건의함(조현명이 중재) ② 박찬신이 이만유를 포함함. ③ 세각 처리 문제로 오명항과 의견 충돌(자체 대비). ④ 자객의 야습과 방어	①은 조현명이 건의 ②와 ③은 없음. ④의 주체는 조현명, 오명항 ④에 거론된 자객의 규모 차이
21일	한일운, 민제장, 민제만, 권희학의 참전 및 역할 부여	

48) 말미에 “하권 중간은 유실되어서 옮겨 놓지 못한다.(下卷中間遺失, 并未得贖附.)”는 기록이 있으므로 필사 당시에 28일 이후의 부분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9) 권1, 33a에 “20일”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권2 서두에 다시 “20일”이 나타난다.

22일	① 저녁에 안성에 이르러 기습적인 전투를 벌임 ② 세작의 공초로 적의 위치 파악함 ③ 2명의 적장을 생포하는 공을 세움.	①의 정탐병인 방득규는 오명향이 불러들임. ③은 장면 비슷하나 결과 다름
23일	① 오명향이 이만유 공적을 보고하고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기를 청하는 장계 올림. ② 박찬신은 시기하고 이만유는 관대하게 대응함. ③ 동생 이만홍의 출전 배경과 활약(포로 회유) ④ 이만유가 적정 살피고 격문을 전함(박찬신의 주장)	①, ②는 없음. ③은 권회학의 공적(이만홍의 언급은 없음) ④는 없음.
24일	① 박종원을 베다. ② 원파충(원만주)의 공초[적의 규모 및 체계 이해] ③ 이만홍이 환대를 받고, 이삼의 종사관이 됨 ④ 이만유가 홀로 이인좌의 진을 어지럽힘. ⑤ 박찬신의 고집으로 기회를 놓침.	※ 모두 23일의 일임. ①은 조태선/이만유 역할 다름. ②의 집주인 원파충은 등장하지 않음. ⁵⁰⁾ ③, ④, ⑤는 없음.
25일	① 박문수가 이만유를 “理學武將”으로 평가하다. ② 박찬신의 군대가 패배함(독약가루를 이용한 공격) ③ 이만유가 공격에 나서니, 이인좌가 진을 지킴. ④ 이인좌의 삼계진에 관군이 피해를 입지만, 이만홍의 활약으로 적장 4인을 참함.	※없는 내용임.
26일	① 전황을 보고하고 적장의 “술법”에 대한 언급함. ② 교서에 따라 이만유가 가선대부 좌선봉장이 됨 ③ 박찬신의 병사를 나누어 좌선봉에게 속하게 함. ④ 이인좌의 야습으로 박찬신의 진이 무너짐 ⑤ 이만홍이 적장 3인을 참함.	※없는 내용임.
27일	① 이만유의 작전 준비(복병 배치) ② 순무영의 서울 출신 병사 문제와 이인좌의 면모 ③ 이만유의 화살을 이인좌가 막지만 부상을 입음. ⁵¹⁾ ④ 이만홍이 공을 세우나 퇴각 명령에 아쉬워함. ⑤ 이만유가 적의 복병계를 간파하여 대승을 거둠.	※없는 내용임.
28일	① 험준한 곳을 지키지 않은 적군을 급히 공격함. ② 이만유가 이만홍, 최이준 등에게 계교를 줌. ③ 이만유가 신길만 및 승려들과 약속을 정함. ④ 정세운을 유인하여 생포함(이만유의 화살에 맞음) ⑤ 불을 뿜는 괴수의 등장에 관군이 당황하고, 대포임을 간파한 이만유가 납으로 괴수 입을 봉해 전멸시킴. ⑥ 박찬신이 달아나는 이인좌를 추격하다가 손실 입음 ⑦ 이만유의 계교에 따라 신길만 등이 이인좌 생포함. ⑧ 이인좌를 묶어서 오명향이 문초하고 서울로 압송.	※ 모두 24일의 일임. ①의 판단은 오명향이 함. ②, ③은 없음. ④는 이만유의 화살 부분이 없음. (추격에는 관여) ⑤, ⑥은 없음 ⑦은 이만유와 무관하게 서울. ⑧은 이만유의 역할 차이

50) 원만주가 주요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원파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원만주는 5월 23일과 24일에 국문을 받았고, 24일에 참형에 처해졌다.

51) 이만유가 홀로 적진을 살피다가 숨어서 활을 쏘는데, 이인좌는 이를 막아낸다. 두 장수의

『남정일록』의 사건을 표현 차원에서까지 활용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상당실록문집』에서는 이만유의 재능과 공로를 높일 만한 요소들이 다수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영장(中營將)으로 출전하게 된 이만유를 위해 임금이 추곡(推轂)의 예를 행했다는 것처럼 이미 출전 이전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한 데서 출발하여 신이한 책략과 출중한 무예를 발휘하여 이인좌를 생포하기까지, 이만유는 보통의 장수와는 다른 면모를 갖춘 것으로 묘사된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호남절의록』의 일부 사례처럼 기존 기록의 ‘주어’를 바꾸는 수법도 사용되지만, 아예 새로운 일화와 새로운 인물을 추가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서술의 실제 사례로 이인좌를 생포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공이 취타 기구를 갖춘 보졸 10여인을 이끌고 필마로 남쪽으로 달려가니,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칠정 동구에 이르니, 신길만(申吉萬)과 다섯 병졸이 말머리에 와서 급히 아뢰었다.

“갑자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포효하더니 석진에 들어갔는데, 비바람이 급히 일더니 돌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맹수는 간 데 없고 머리를 풀어헤친 장부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가 한 걸음을 옮기면 돌들이 사납게 쳤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사람인가 귀신인가? 하늘이 장차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인가? 이 어찌 신의 힘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공이 진 밖에 말을 세우고서 보졸들로 하여금 머리를 풀어헤친 자를 잡아내게 하였는데, 곧 이인좌였다. 길에다가 풀렸더니, 인좌가 곳곳이 서서 말하기를, “지모(智謀)는 다하고 병사들은 패하였지만, 죽으면 곧 죽을 뿐이다.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쇠줄로 묶어서 함거에다 실었다.⁵²⁾

『감란록』을 비롯한 공식적인 문헌에서 이만유가 이인좌를 생포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이인좌를 생포한 사람은 신길만이라는 백성으로 기록되어

무예 실력을 그려낸 장면이며, 이후 난적 이인좌를 패배시키는 단서가 된다.

52) 『사상당실록문집』 권2, 38b. “率步卒十餘人，持吹打器具，匹馬南馳，衆皆異之。公疾馳，至七井洞口，申吉萬與五卒，急報馬頭曰，俄有一大虎咆哮而至，入於石陣，而風雨迅作，衆石飛揚，小焉猛獸了無去處，有一丈夫，披髮而立。運一步，則陣石殺伐，拱立仰天歎曰，人耶鬼耶，天將疾吾與耶，是何神耶云爾。公立馬陣外，使步卒，拿來披髮者，乃獐佐也。跪之逕下，獐佐兀然起立曰，智窮兵敗，死則死矣。膝可屈乎。鐵索縛之，囚之輜車。”

있는데, 신길만이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체포했다거나 혹은 승려들이 체포했는데 신길만이 그 공적을 가로챘다는 등의 이야기 정도가 전해질 뿐이다. 그런데 『사상당실록문집』에서는 앞날을 미리 읽을 수 있는 이만유가 신길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 석진(石陣)을 펼치게 하였고, 이인좌가 진법을 벗어 나지 못한 까닭에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인용된 부분에서는 역사 기록보다 훨씬 대단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는 이인좌가 결국 생포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것처럼 대단한 이인좌가 신길만 같은 백성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인좌보다 뛰어난 이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사상당실록문집』이 이만유를 특별한 인물로 그려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감란록』과 같은 공식 기록을 보완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이만유의 공적을 더 높이려는 의도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편찬 시기가 조선의 망국 이후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도 가능할 듯하다. 즉 영조가 세우고 후대 국왕들이 보존한 ‘무신란’에 대한 공적인 지식이 과거와 같은 힘을 갖지 못한 시점이라면, 특정한 목적을 위한 허구화가 충분히 허용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의 ‘성무(聖誼)’를 반복함으로써 영조를 공격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허구화는 용납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만하다.

여기에 더하여 그 결과로 흥미의 요소가 강화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실 『감란록』이나 『남정일록』의 전투 장면에서는 특별히 흥미로운 묘사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무신란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인 죽산-안성 전투조차 불과 이틀 만에 큰 곡절 없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실을 서술한다고 하면서 이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바꿔놓기는 어렵다. 자객과 기습 공격, 그리고 척후병을 활용하고 복병을 경계하면서 진군하는 장면, 정세윤이나 이인좌가 생포되는 장면 정도가 『감란록』이나 『남정일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척후병이나 세작을 활용하고 문초하는 방법 등조차 사실이었는지 의문시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였다.⁵³⁾ 무신란으로 인한 유형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았던 상황과는 별개

53) 남인인 남하정(南夏正, 1678~1751)의 『동소만록(桐巢漫錄)』에 그러한 사례가 보인다. 남하정은 오명항의 신기한 계책이나 귀신같은 피와 솜씨는 사실 없었으며 꾸며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론이 반영된 서술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념의 대립과는 별개로 당시 전란의 과정이 치열한 전투와는 거리가 있었던 현실을 배경으로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 무신란 자체에서 커다란 전투 장면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상당실록문집』에서는 이만유와 그의 적대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부여하여 흥미로운 전투 장면을 만들어내는 한편으로 이만유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인물로 실존 인물 박찬신을 설정하여 굴곡이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지역, 집단 등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다. 시대의 상황과 이념에 따라 사건의 중요도가 달라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헌에 기록되는 사건의 개요나 디테일, 또는 초점을 바꿔놓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변화의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러한 사례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렇지만 무신란(戊申亂)의 경우에는, 적어도 봉당의 의리나 국왕에 대한 충성이 높이 평가되던 조선시대에는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듯하다. 무신란은 ‘국왕의 정통성에 대한 의심’이라는 출발점 자체부터 심각한 사건일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국왕에 의해 주도된 공식적인 이해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설사 마음속에 이에 대한 반론을 품은 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그에 맞춰 사건의 경과를 다시 서술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감란록』과 『친의소감』이 무신란 이해의 틀을 마련한 이후의 상황은 이러한 배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인데, 직접적인 반론은 ‘벽서(壁書)’ 수준이 아닌 문헌 수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가문, 봉당 혹은 지역을 옹호하기 위한 보완 수준의 의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정일록』, 『무신창의록』, 『호남절의록』 같은 문헌이 변화의 최대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왕조와 봉당이 사라진 시점에 이르면, 발언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은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사상당실록문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담한 허구화는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헌이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남았던 이유가 무엇

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역사적 사건인 무신란의 전개 과정을 역사 기록과는 완전히 달리 서술한 데 대한 대중적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간행과 관련된 논란 자체를 찾아볼 수 없으니,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으리라고 추정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사건 자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줄어들었던 것이 실질적인 이유였을지 모른다. 만약 이런 추정이 성립될 수 있다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자 오히려 말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중적 관심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1728년 무신란'은 오늘날에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지역이나 집단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⁵⁴⁾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시대적 관심에서 비껴나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민족주의 담론 차원에서 일제 강점기에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단군'이나 '동명왕', 그리고 인륜과 권력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보편적 흥미의 대상이 되었던 '사도세자 사건' 등과 비교해 보면 이런 상황은 보다 명확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경종 독살설'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권력의 본성 문제를 다루는 대체 역사 드라마가 나타난 것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⁵⁵⁾ 향후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는 '무신란'이라는 사건이 새로운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무신란을 기록한 문헌들이 그 동안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그 동안의 역사 및 문학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헌의 서지 및 내용을 점검해 보았다. 그렇지만 관련 문헌 전체를 검토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각종 당론서(黨論書)를 비롯하여 비록 단편적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을 법한 문헌들을 제대로 살펴보기

54)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편차는 조선시대에도 있었을지 모른다. 적어도 "성무(聖誣)"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장필기, 『영조 대의 무신란, 탕평의 길을 열다』에서도 "당시 준소(峻少)의 주동자들이 내세웠던 경종 시해설과 복수의 의미는 어찌 보면 하층민들에게는 별로 절실하지 않은 사안이라서 생사를 걸 만한 힘을 도출해 낼 수 없었을 것이다."(139면) 거나 "끝까지 난을 이어 간 세력의 대부분은 주도 세력의 친인척이었다."(140면)는 등의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55)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을 들 수 있다. KBS 역사스페셜 "경종 최후의 날, 왕은 독살 당했는가?"(2003. 3. 22.), SBS 드라마 「대박」(2016, 남건 연출, 권순규 극본).

는 못했다. 보다 다양한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사찬 문헌이나 허구화된 작품에서 사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에는 다른 사건의 사례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감란록(勘亂錄)』.
『남정일록(南征日錄)』.
『동소만록(桐巢漫錄)』.
『무신창의록(戊申倡義錄)』.
『사상당실록문집(四尙堂實錄文集)』.
『친의소감(闡義昭鑑)』.
『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
『평남록』.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2. 단행본

- 고성훈, 『영조의 정통성을 묻다, 무신란과 모반 사건』,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이이화 편, 『조선당쟁관계자료집』 9, 여강출판사, 1985.
장필기, 『영조 대의 무신란, 탕평의 길을 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조찬용, 『1728년 무신봉기와 300년 차별』, 학교방, 2012.
Andrew David Jackson, *The 1728 Musin Rebellion*,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6.

3. 논문

- 고수연, 『英祖代 戊申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湖西史學』 제39집, 호서사학회, 2004, 177~211면.
———, 『『무신창의록』을 통해 본 18, 19세기 영남 남인의 정치 동향』, 『역사와 담론』 제65집, 호서사학회, 2013, 311~349면.
김동수, 『호남절의록의 사료적 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제44집, 호남사학회, 2011, 31~104면.
노기춘, 『호남절의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4집, 한국서지학회, 2009, 271~299면.
박상석, 『전란에 뒤흔들린 민간인의 일상: 민간인의 무신란 체험 실기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35~67면.
유태일, 『미발표작품 <날리가>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61집, 국어국문학회, 1973, 108~111면.

- _____, 『아원즉 장수잡는 일이기예』, 『오늘의 문학』 창간호, 오늘의 문학사, 1977, 34~67면.
- 이 옥,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제42집, 고려사학회, 2011, 141~168면.
- 이원균,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 『釜大史學』 제2집, 효원사학회, 1971, 63~87면.
- 이종범, 『1728년 ‘戊申亂’의 성격』, 이태진 편,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태학사, 2003(초판 1985), 213~289면.
- 이지영, 『『關義昭鑑諺解』의 異本에 대한 고찰』, 『한국학』 제33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95~120면.
- 정병설, 『‘도서원부’를 통해 본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한국고서 수집』, 『문헌과해석』 제63집, 태학사, 2013, 117~144면.
- 정승철, 『『關義昭鑑諺解』의 異本 比較』, 『규장각』 제13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0, 39~58면.
- 정우봉, 『18세기 마병(馬兵)의 한글일기 ‘난리가’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43집, 고전문학회, 2013, 295~326면.
- 최선혜, 『단릉 이윤영의 시문에 나타난 영남의 인상: 1728년 무신란의 흔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2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4, 41~73면.
- 허태용, 『1728년 戊申亂의 진압과 『勘亂錄』의 편찬』, 『한국사연구』 제166집, 한국사연구회, 2014a, 107~141면.
- _____, 『英祖代 蕩平政局下 國家義理書 편찬과 戊申亂 해석: 『勘亂錄』, 『御製大訓』, 『關義昭鑑』의 비교 검토』, 『사학연구』 제116집, 한국사학회, 2014b, 71~104면.

A Re-assessment of the Texts on the 1728 Musin Rebellion

Hwang, Jae-moon

Musin Rebellion(戊申亂)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ffair in the history of 18th Century Joseon. On the occasion of this rebellion King Yeongjo reorganized the taxation and examination system, but he had to keep his eyes on the public discourse. Because it was clear that this rebellion put forward a dangerous argument that implied doubts about the legitimacy of the king. While the king praised many public figures, he compiled a book with official opinions, such as *Gamlanrok*(勘亂錄) and *Chonuisogam*(闡義昭鑑). Although some might have disagreed with the descriptions in these texts, no documentary works containing full-scale counterargument against the *Gamlanrok* was published during the Joseon Dynasty. Instead, texts to supplement *Gamlanrok* with its own inten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ction, family or region appeared, including *Namjeongilrok*(南征日錄) and *Honanjeleuirok*(湖南節義錄). These texts seem to be official records led by the state, but in reality they are not nationally recognized and bear the mark of highlighting or exaggerating the achievements of a particular individual or group. It also sometimes contains suspicious statements about whether they are true or not.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Musin Rebellion turned into an object of fictionalization. A case in point is the *Sasongdang-Silok-munjit*(四尚堂實錄文集) which features a biography about the achievements of the powerful man and great general Yi manyu. In this book, editor or writer changed other people's exploits to those of Yi Manyu, and sometimes added elements of legend and fiction. The fact that this work has not yet been published shows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social acceptance of such fiction, but nevertheless, it is certainly a new change to show the face of fiction tha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tolerate before. However, the similar texts did not produce much, which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fact that Musin Rebellion was inconsistent with the new concerns of the time. At least it cannot be evaluated as a successful reinterpretation or reconstruction of this rebellion.

keywords: Musin Rebellion, *Gamlanrok*(勸亂錄), *Cheuisogam*(闡義昭鑑),
Namjeongilrok(南征日錄), Yi Manyu, *Sasangdang-Silok-munjip*(四尙堂實
錄文集)

접수일자: 2019. 9. 30.

심사기간: 2019. 10. 1.~2019. 11. 10.

게재결정: 2019. 11. 10.